

임신부의 자녀관: 성선호와 임신동기

Pregnant Women's Value of Children: Sex Preference and Pregnancy Motivation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박京愛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Park, Kyung Ae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V. 논의 및 결론

〈Abstract〉

Sex preference and pregnancy motivation are analyzed using the data of 117 pregnant women in Chonju C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women prefer son, regardless of various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pregnancy experience, number of children, women's education, occupation, income, religion, and men's education and occupation. Sex pre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women's marital status and age, and children's sex composition. The analysis on 19 pregnancy motivation items shows that pregnancy motivation differs by women's occupation,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education and their partner's education. Factor analysis on pregnancy motivation items reveals six dimensions for all pregnancy: economic ability, value of child-care, psychological stability, family lineage, old economic dependency, and household support. Among these, family lineage and old economic dependenc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mensions for son preference compared with daughter preference.

I. 서 론

출산 행위는 시대와 사회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여러 가지 동기에서 비롯된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전통가족에서 가계계승은 매우 중요시 되었고,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아를 여유있게 낳아야 했으며, 사회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노후의 경제적 의존 욕구는 “부귀다남”이라는 가치관과 관습을 주도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출산행위는 부부들의 자녀관을 기초로 부부가 처한 여건하에서 가정의 행복과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알맞는 자녀의 수와 성을 계획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 동시대 동사회적 여건하에서도 부부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출산 행위는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에 관련된 연구는 천편일률적으로 거시적 통계수치만을 중시할 뿐 임신과 출산과정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에는 중점을 두지 않아 자녀의 출산이 왜 이루어지는지, 사회인구학적 배경별로 자녀의 욕구에 대한 차이는 있는지의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현재 임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별 자녀관을 임신의 동기, 성선택 및 성선택 이유를 중심으로 탐색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의 기반을 닦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남아선호의 이유

남아선호 사상은 극소수의 모계사회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특히 아랍 및 동남아시아에서 남아선호가 강하다.¹⁾ 한국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여; 출생시의 성비 불균형, 남녀별 이상 자녀수, 현존자녀의 성별 분포에 따른 가족계획 실천율에도 현저한 차를 보인다.²⁾

한국의 남아선호는 조선 중기부터 강하게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재석에³⁾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아들, 친손자, 딸, 사위, 외손자까지도 왕위 계승에 포함되었음은 물론 재산에 있어서도 남녀균분상속이었다. 조선조 세종 때까지만 해도 왕위 계승을 제외하고서 재산에 있어서도 엄격한 부부별산제 및 남녀의 구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혈통을 잇기 위해 양자를 맞아들인 예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조 후기에 들어오면서 유교의 보급과 당쟁의 심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계가족과 문중 및 장자 상속제가 확립되자 남존여비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일반화 되었다고 한다. 이흥탁도⁴⁾ 고려조와 조선 초기까지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균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부모 재산을 상속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딸이 제사를 받드는 사례가 있었으나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급격히 증가한 인구로 말미암아 여성은 상속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남아에 대한 노후의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노후의탁의식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가계계승이나 가문의 번영과 같은 부계 중심의 사회문화적 씨족 개념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Cain이나⁶⁾ Caldwell⁷⁾ 등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남아선호를 노후의존에서 찾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신부대금이나 혈통,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종교 및 관습과 노후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아직까지도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⁸⁾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관계는 약화되고 심리적인 애정적 관계가 중시되고 있으며, 사회학적 및 심리학적 연구들은 임신의 동기로서 본능, 성적 능력의 과시, 정신 건강, 부모로서의 자부심, 보상욕구, 애정욕구, 혼인 및 가족의 완성, 자아의 분신, 혈통의 계승, 노후의 경제적 의존, 종교 및 문화적 관습 등 참으로 다양한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⁹⁾ 확실한 것은 이 다양한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임신의 동기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뿐이다.

2. 출산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임신의 동기보다는 출산행위의 외형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1960년대에는 3남2녀를, 1970년대에는 2남1녀를, 1980년대 초에는 1남1녀를 이상적인 자녀의 수와 성으로 여긴다는 연구가 있기도 하지만,¹¹⁹ 우리나라의 성선호는 남아선호일변도로써 소자녀가정은 주로 남아로, 다자녀가정은 주로 여아로 구성되는데, 첫아이의 성이 가족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어 첫아이가 여자이면 다자녀가정으로 될 확률이 남아인 경우보다 현저하다.¹²⁰

뿐만 아니라 첫째 자녀에서 두번째 자녀로의 진행여부는 첫째 자녀의 성과 무관하지만 두번째 자녀에서 세번째 자녀로의 진행여부는 두번째 자녀의 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¹²¹ 이처럼, 첫째에서 둘째 또는 둘째에서 셋째 자녀로의 진행여부는 성선호의 영향을 받음이 확실하고 나아가서 자녀의 수를 결정 지으며¹²² 소자녀 규범이 강할수록 성선호가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출산행위의 차이는 잘 알려져 있는데,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력은 낮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기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또는 어느 사회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단순하지만은 않다. 한국의 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¹²³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출산력은 감소하는데, 특히 부인과 남편의 교육은 출산력과 직선적인 부적 관계를 나타내지만, 소득이나 직업의 경우는 출산력과 명백한 부적 관계를 보이지 않는데,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되었을 때 상대소득이 올라갈수록 출산력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수준이 적당하다고 느낄 때는 출생아수는 감소한다고 한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부인의 기회비용, 자녀의 순비용 및 공공비용이 통제된 경우 소득은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¹²⁴

부인의 직업활동과 출산력과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산력과 여성취업이 역의 관계를 이룬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면

도 있다. 한국과 같은 가족주의적 문화 배경에서는 농사에 종사하는 부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인보다 출산력이 오히려 높을가 하면,¹²⁵ 저소득층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출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¹²⁶ 1986년에 시행된 전국가족생활주기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취업은 그 자체만으로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달리하게 하는데, 출산기에서의 취업은 출산간 간격을 늘리면서 소자녀를 갖는 경향을 뚜렷하게 하며, 취업형태에서도 가정과 독립된 경우는 양립된 경우보다 출산력에 주는 영향이 크며, 직종에서도 전문, 사무직일수록 소자녀를 갖는 경향이 뚜렷하다.¹²⁷

이외에도 가족원의 합의, 특히 출산의 주체자인 부부의 의사는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부장제 사회보다 근대적 사회에서 부부의 출산 목표는 동일해지지만, 남성과 여성의 출산 목표는 달라, 남자가 남아를 더 선호하며, 여자는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한다고 보고 한다.¹²⁸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출산 욕구가 다를 때 피임이나 자녀의 수에 영향을 주어 부부의 상반된 의견의 중간 크기의 자녀수를 이룬다고 한다.¹²⁹

종합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가계계승과 노후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남아를 선호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동기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자녀의 수와 성구성, 부부의 직업, 교육, 소득 및 부부간의 출산 합의 정도가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와 성구성, 부부의 직업, 교육,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성선호는 어떠한고, 성선호 이유는 무엇이며, 임신의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992년 6월 전주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포함한 10개의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현재의 임신 상태, 임신의 동기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전체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현재의 임신 상태에 대해서는 원하는 임신인지, 태아의 성이 무엇이기를 원하는지, 원하는 성이 아닐 경우에 낙태 의사가 있는지 및 임신 경력에 대한 폐쇄형 질문과, 특정 성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했다. 둘째, 현재의 임신에 대한 19개 항목의 7점 응답 범주의 임신 동기 문항을 포함시켰고,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에서는 임신부의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수준, 소득, 종교, 태아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폐쇄형 질문을, 임신부 및 태아의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했다.

질문지는 200장을 배부해서 126장이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17명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통계적 분석은 SAS PC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배경별 성선호도와 성선호 이유 및 임신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T-Test, 변량분석 및 요인 분석을 했다.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 보면, 연령 구조는 20-25세가 14%, 26-30세가 59%, 31-35세가 26%, 36세 이상이 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상태는 기혼이 97%, 미혼이 3%이다. 임신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50%, 고졸이 43%, 중졸이 7%이며, 태아의 아버지 교육수준은 67%가 대졸이상이다. 임신부의 60%는 전업주부이고, 40%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을 가진 임신부 자신의 소득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75%를 차지한다. 임신부의 40%가 무종교이고, 경제수준은 상과 하로 평가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73%가 중의중으로, 17%가 중의상, 10%가 중의하로 평가하고 있어 전주시의 중산층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본 전체의 임신 경력은 첫임신이 47%, 두번째가 43%, 세번째 이상이 10%이다. 이들의 87%가 현재의 임신이 원하는 임신으로 응답했으며, 태아를 제외한 현존 자녀수는 무자녀가 44%, 한 자녀를 둔 사람이 42%이다.

IV. 결 과

1. 성선호

본 표본의 68%가 현재 임신 중인 태아가 남아이기를 선호했고, 여아선호는 26%, 남녀 상관없다와 무응답은 7%로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남아선호에 있어서 임신부의 임신경력, 교육수준, 직업유무, 경제수준, 종교, 배우자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이라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별 차이가 없었다.

성선호와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관계는 자녀의 성구성($\chi^2 = 33.472$, $P < .001$), 임신부의 혼인상태($\chi^2 = 4.817$, $P < .05$)와 연령($\chi^2 = 6.501$, $P < .05$) 뿐이다. 연령상으로는 20대 초반의 50%, 20대 후반의 80%, 30대 초반의 60%가 남아를 선호했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100% 딸을 선호하지만, 기혼여성은 72%가 아들을 선호했다. 자녀의 성구성별로는 첫자녀가 남아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79%, 남아가 1명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를 바라는 사람은 28%, 여아만 1명 이상 있는 사람은 100% 남아를 바랐다.

성선호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원하는 성이 아니면 낙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아가 아닐 경우 낙태를 하겠다는 사람은 6%, 여아가 아닐 경우 낙태를 하겠다는 사람은 10%이었지만, 낙태 의사와 성선호도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아니었다.

성선호 이유에 대한 개방형의 질문에 대해 크게 4가지 유형의 응답이 나왔다. I. 자녀의 성구성을 위해서, 즉 아들이 있으니까 또는 딸이 있으니까가 35%, II. 대를 잇기 위해서가 31%, III. 교감이 쉽다든지, 양육이 용이하다든지, 여자는 위험하다 등의 양육상의 이유가 19%, IV. 시가, 남편 등 가족이 원해서가 15%이다. 이러한 선호이유는 남녀의 선호에 따라 달라($\chi^2 = 33.577$, $P < .001$) 남아를 선호할 경우 44%가 대를 잇기 위해서, 29%가 자녀의 성구성을 위해, 21%가 가족이 원하니까, 나머지 7%가 양육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반해, 여아를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상의 이유와 자녀의 성구성을 위해서가 각각 50%를 차지한다.

2. 임신동기

7점 응답 범주로 측정된 19개 임신동기 항목중 4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보여 준 항목은 <표 1>이 제시하는 것처럼 생명은 하늘이 준 은총, 자녀양육은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족이 원해서, 형제가 많아야 외롭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 관계 때문이다.

성선호에 따른 임신 동기도 달라, 자녀가 많으면 권력이 많아지니까,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노후의 경제적 의존을 위하여, 가계 계승을 위하여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집단이 여아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표1 참조).

19개의 항목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임신 동기의 차이 여부를 ANOVA를 한 경우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범주를 축소시켜 t-test를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 사회경제

적 변수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수와 피임 실패 ($t = -2.17, P < .05$) 자녀의 수와 형제관계 ($t = -3.35, P < .001$), 남편의 교육과 심리적 관계 ($t = -3.04, P < .01$), 남편의 교육과 경제적 여유($t = -2.06, P < .05$), 남편의 교육과 형제 관계 ($t = 2.07, P < .05$), 임신부의 교육과 심리적 관계 ($t = -3.38, P < .01$), 임신부의 직업 유무와 가족의 원 ($t = -1.98, P < .05$), 임신부의 직업 유무와 형제 관계($t = -3.22, P < .01$), 혼인상태와 경제적 여유 ($t = -6.02, P < .001$), 혼인상태와 권력의 상징($t = -5.33, P < .001$), 혼인상태와 심리적 의존($t = -8.92, P < .001$)이다.

이들 관계를 해석해 보면, 현존자녀가 있는 경우 피임 실패 가능성이 높고, 형제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태아의 아버지가 대졸 이상일 경우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관계 및 경제적 여유를 중시하며, 형제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중요하지 않다. 임신부도 대졸이상일 경우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며,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가족이 원해

<표 1> 임신동기에 대한 평균 및 성선호집단별 t-test

변 수	전체평균 (n=117)	남아선호 (n=79)	여아선호 (n=30)	t
가계계승	3.94	4.39	2.80	3.55***
가족의 원	5.10	5.27	4.66	1.30
노후경제의존	1.83	2.05	1.40	2.80**
여자의 임무	2.76	2.75	2.73	.05
심리적 관계	4.09	4.06	4.10	-.07
재산상속	1.68	1.75	1.63	.44
가사조력	1.66	1.64	1.73	-.28
제사	2.05	2.30	1.60	2.20*
형제우애	4.30	4.37	4.40	-.04
가문번성	2.89	3.08	2.53	1.35
할일이 없어서	1.15	1.15	1.20	-.22
소자녀 불안	2.53	2.77	2.10	1.89
노후심리의존	2.79	2.68	2.16	1.46
혼인지속	2.64	2.81	2.26	1.33
자녀양육가치	5.36	5.22	5.76	-1.35
생명은 은총	5.68	5.72	5.70	.04
권력의 원천	1.56	1.67	1.30	2.02*
경제적 여유	1.82	1.93	1.63	.98
피임 실패	1.41	1.34	1.70	-1.04

* P < .05 ** P < .01 *** P < .001

서, 형제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중시한다. 기혼은 미혼보다 경제적 여유, 자녀가 많아야 권력이 많아 지니까 및 자녀와의 심리적 관계를 중시한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신동기에 대한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 분석은 6개의 요인을 분류하고 있는데, 각각의 명칭은 경제적, 자녀양육의 가치, 심리적 안정, 노후의 경제적 의존, 가계계승, 가사의 조력이라고 붙여질 수 있다. 각 요인의 중요성 면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집단과 여아를 선호하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표 3〉의 varimax 회전에 의한 표준화 요인 점수 계수를 사용해 요인별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egin{aligned} \text{경제력} &= (.23 \times \text{재산상속}) + (.15 \times \text{가사조력}) + (.32 \\ &\quad \times \text{권력원천}) + (.35 \times \text{경제적 여유}) \\ \text{자녀양육가치} &= (.20 \times \text{여자의 임무}) + (.19 \times \text{심리적} \end{aligned}$$

$$\begin{aligned} &\text{관계}) + (.35 \times \text{자녀양육가치}) + (. \\ &\quad 27 \times \text{생명은 은총}) \end{aligned}$$

$$\text{심리적 안정} = (.23 \times \text{형제우애}) + (.35 \times \text{소자녀 불}$$

$$\text{안}) + (.32 \times \text{노후심리의존})$$

$$\text{가계계승} = (.38 \times \text{가계계승}) + (.19 \times \text{가족의 원}) + (. \\ 34 \times \text{가문번성})$$

$$\text{노후경제의존} = (.37 \times \text{노후경제의존}) + (.26 \times \text{제} \\ \text{사})$$

$$\text{가사조력} = (.20 \times \text{재산상속}) + (.36 \times \text{가사조력}) + (. \\ 23 \times \text{제사})$$

위의 6개 요인에 대한 점수 차이를 t-test로 검증한 결과 노후경제의존($t=3.34$, $P<.01$)과 가계계승($t=2.80$, $P<.01$)이 여아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집단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Varimax 회전에 의한 요인구조 행렬표

변 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 ²
가계계승	-.06	.14	.10	.62	.23	-.02	.48
가족의 원	.03	.30	.13	.42	-.05	.14	.31
노후경제의존	.32	.10	.11	.15	.61	.13	.55
여자의 임무	.14	.44	.16	.12	.08	.36	.40
심리적 관계	.24	.47	.21	.09	-.23	-.16	.42
재산상속	.56	.09	-.02	.06	.10	.41	.51
가사조력	.50	.13	.03	.00	.27	.52	.62
제사	.23	.00	.09	.37	.47	.43	.62
형제우애	.17	.16	.48	.34	-.12	.11	.43
가문번성	.16	.16	.28	.58	-.00	.21	.53
할일이 없어서	.14	-.05	.04	-.01	.35	-.02	.15
소자녀 불안	.08	.00	.62	.18	.11	.17	.47
노후심리의존	.03	.13	.56	.09	.39	.06	.51
혼인지속	.37	.34	.36	.10	.19	.33	.55
자녀양육가치	.09	.64	.10	.07	-.01	.04	.44
생명은 은총	.02	.55	-.08	.21	.07	-.01	.37
권력의 원천	.64	.06	.25	.05	.33	-.01	.60
경제적 여유	.69	.15	.08	.03	.18	-.02	.54
피임 실패	-.02	-.02	.12	.07	-.02	.27	.09
고유값	1.95	1.52	1.39	1.34	1.31	1.13	8.67
분산의 백분율	22.53	17.56	16.11	15.53	15.20	13.04	100%

주) 요인 1 : 경제적, 요인 2 : 자녀양육 가치, 요인 3 : 심리적 안정,
요인 4 : 가계계승, 요인 5 : 노후경제의존, 요인 6 : 가사조력

〈표 3〉 Varimax 회전에 의한 표준화된 요인 점수 계수

변 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가계계승	-.08	.01	-.08	.38	.10	-.11
가족의 원	-.01	.08	-.01	.19	-.05	.01
노후경제의존	.01	.03	-.03	.00	.37	-.08
여자의 임무	-.06	.20	.00	-.05	-.03	.19
심리적 관계	.11	.19	.06	.01	-.17	-.14
재산상속	.23	-.04	-.13	.00	-.10	.20
가사조력	.15	.02	-.09	-.13	.00	.36
제사	-.05	-.11	-.10	.22	.26	.23
형제우애	.06	-.02	.23	.10	-.16	-.01
가문변성	.03	-.04	.06	.34	-.16	.07
할일이 없어서	.00	-.02	-.00	-.00	.14	-.04
소자녀 불안	-.05	-.10	.35	.00	-.03	.06
노후심리의존	-.13	.04	.32	-.12	.21	-.06
혼인지속	.03	.13	.16	-.09	.01	.15
자녀양육가치	-.05	.35	-.02	-.06	.01	-.02
생명은 은총	-.04	.27	-.11	.04	.06	-.06
권력의 원천	.32	-.08	.10	-.02	.12	-.22
경제적 여유	.35	.01	-.04	-.00	-.02	-.18
피임실패	-.03	-.03	.04	-.00	-.03	.13

주) 요인 1 : 경제력, 요인 2 : 자녀양육의 가치, 요인 3 : 심리적 안정
 요인 4 : 가계계승, 요인 5 : 노후경제의존, 요인 6 : 가사조력

V. 논의 및 결론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산부인과를 찾은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표본의 68%가 현재의 임신이 남아이기를 원했는데, 임신부의 임신경력, 자녀의 수, 직업유무, 교육수준, 소득, 경제수준, 종교, 배우자의 직업 및 교육수준별 통계적 차이가 없이 남아를 선호했다.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자녀의 성구성과 임신부의 혼인상태 및 연령만이 성선호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첫자녀일 경우 79%가 아들을 원했으며, 남아가 한 명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를 선호하는 경우는 28%나 되고, 여아가 한 명 이상 있을 경우 100% 남아를 선호했다. 이로써 1남1녀가 이상 자녀수라는 사회적 통념이 무색할 정도로 이남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볼 때, 미혼 임신부는 100% 딸을 원한 반면에 기혼 임신부는 압도적으로 아들을 선호한다. 이는 여성 혼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아들보다는 딸이 양육 면에서 문제가 적기 때문에²⁴⁾ 미혼모는 딸을 선호하는 반면에, 아들은 결혼이라는 법적 지위 하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모든 연령의 임신부가 남아를 더 선호하지만 연령별 남아선호의 정도 차이는 자녀의 성구성과도 관련이 있어 20대에는 가계계승을 위해 대다수가 아들을 원하지만, 30대에는 자녀의 성구성이 원인이 되어 남아선호가 약간 수그러진다.

성선호 이유를 보면 남아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대를 잇기 위함이 44%를 차지하지만, 여아의 경우 양육상의 이유와 자녀의 성구성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 여아는 교감이 잘 통한다든지, 말을 잘 듣는다든지, 양육하기 쉽다든지 등이 주된 양육의 이유가 되는 반면에, 양육상의 이유로 남아를 선호하는 경우

는 7%를 차지하는데 여자는 고생하니까, 여자의 삶은 억울하니까, 여자는 신체적으로 위험하니까 등 여성의 사회적 소외 때문에 남아를 선호한다.

19개의 임신동기 항목에 대한 성선택 집단별 차이를 검증해 보아도 남아선호 집단이 가계계승이나, 노후의 경제적인 의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및 자녀가 많을수록 권력이 많아진다는 유의미하게 중시한다.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은 모든 임신부의 임신동기로, 경제력, 자녀양육의 가치, 심리적 안정, 가계계승, 노후의 경제적 의존, 가사의 조력이라는 6가지 차원을 분류하고 있는데, 요인별 표준 점수를 성선택 집단별로 비교해 볼 때 남아선호 집단이 가계계승과 노후의 경제적 의존을 더 중요시 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지적한대로 전통사회의 잔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노후의 탁 의식이나 부계 중심의 가계 계승 및 번영을 위한 자녀관²²⁾ 사회인구학적 변수와는 관련없이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아울러 박재빈과 조남훈 및 이흥탁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²³⁾ 태아의 성이 가족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딸일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해 가족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남성의 교육수준, 여성의 교육수준, 직업유무, 혼인상태 및 자녀의 수가 임신동기 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녀의 교육수준이 높고, 기혼일 경우 자녀와의 심리적 관계가 더 중시되고, 전업주부이고, 현존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일 때 형제가 많아 외롭지 않다는 중요시 한다. 이처럼 일부 사회적 배경 변수에 따라 임신의 복합적인 동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임신부의 자녀관에 변화가 일고 있고, 배우자나 가족의 태도에도 변화가 온다면 출산행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전주시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부계중심의 가족주의 체제의 불식 및 노년복지사업의 확대 없이는 남아선호사상이 자녀의 수와 성구성에서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서 결혼제도 및 가족관계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임을 시사한다.²⁴⁾

[참고문헌]

- 1) Williamson, N. E., Sons or Daughters: A Cross-Cultural Survey of Parental Preferences, Beverly Hills, Calif.: Sage, 1976.
- 2) 지하룡, 박재용, "종합병원 출생아의 성비에 관련된 요인",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2호, 1988, pp. 67-76.
- 3) 최재석, 한국 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
- 4) 이흥탁, 여성사회학, 법문사, 1986.
- 5) Lee, H. T., Cause of Son Preference in Korea: A Sociodemographic Analysis, A Research Report to W.H.O., 1982.
- 6) Cain, Mead, "Fertility as an adjustment to risk," pp.145-160, in Alice Rossi (ed.), Gender and the Life Course, N. Y.: Aldine, 1986.
- 7) Caldwell, J. C., Theory of Fertility Decline, N.Y.: Academic Press, 1982.
- 8) Das, Narayan, "Sex preference and fertility behavior: A Study of recent Indian data," Demography Vol. 24, No.4, 1987, pp. 517-553.
- 9) Moss, N. E., S. I. Abramowitz, and G. R. Racusin, "Parental Heritage: Progress and Prospect", pp. 499-522, in Luciano L'Abate (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85.
- 10) 공세권의,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p.114.
- 11) 박재빈, 조남훈, "성선택으로 인한 과잉출생수의 추정", 인구보건논집 제4권 제1호, 1984, pp. 3-19.
- 12) Lee, Hung-Tak, "Fertility impact of sex composition and sequence among Korean women: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4, No.1, 1984, pp. 161-176.
- 13) Yamaguchi, Kazuo, "A formal theory for male -preferring stopping rules of childbearing : Sex

- differences in birth order and in the number of siblings”, *Demography* Vol.26, No.3, 1989, pp. 451-465.
- 14) 김두섭, “출산력의 경제적 요인”, pp. 135-169, 한상복, 권태환 편, 경제인구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 15) Borg, Mary O'Malley, “The Income-fertility relationship :the effect of the net price of a child”, *Demography* Vol.26, No.2, 1989, pp. 301-310.
- 16) 김두섭, “출산력의 경제적 요인”, pp. 135-169, 한상복, 권태환 편, 경제인구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 17) 김한곤,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부인의 출산행위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1호, 1988, pp. 87-96
- 18) 조애조, 공세권, “부인의 취업과 출산력과의 상관성 연구”,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1호, 1988, pp. 34-57.
- 19) Mason, K. O. and A. M. Taj, “Differences between women's and men's reproductive goals in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13, No.4, 1987, pp. 611-638.
- 20) Thompson, E. and E. McDonald, and L. Bumpass, “Fertility desires and fertility: Hers, His, and Theirs”, *Demography* Vol. 27, No.4, 1990, pp. 579-588.
- 21) Rossi, A. S., “Gender and Parenthood”, pp. 161-191, in A. S. Rossi (ed.), *Gender and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1985.
- 22) 참고, 최재석(1983), 이홍탁(1986), Cain(1986), Caldwell(1982), Das(1987), 전게서.
- 23) 참고, 박재빈, 조남훈(1984), Lee(1982, 1984), 전게서.
- 24) Guttentag, M. and P. Secord, *Too Many Women?* Beverly Hills:Sage, 1983.